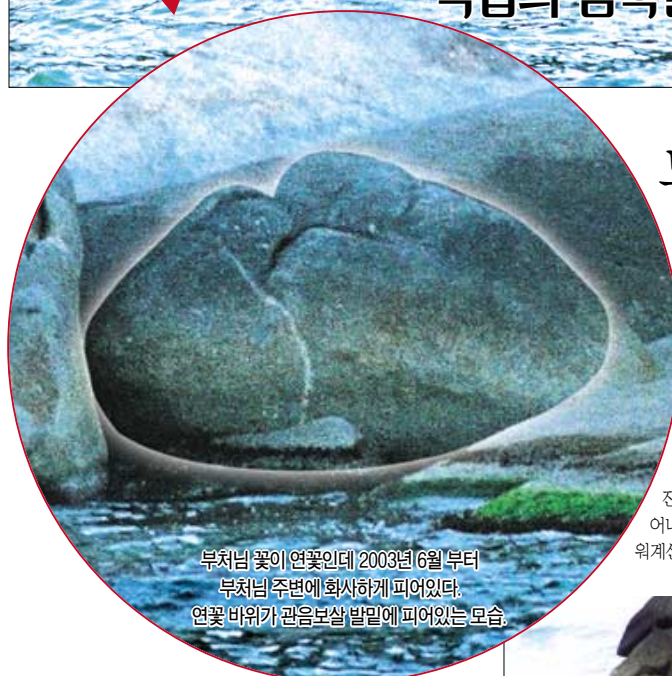




觀音聖地 休休庵

破 億劫 沈默 海中智慧 觀世音菩薩 現身 道場

억겁의 침묵을 깨고 바다에 나투신 관세음보살님 계신 곳



부처님 꽃이 연꽃인데 2003년 6월부터 부처님 주변에 회색하게 피어있다. 연꽃 바위가 관음보살 발발에 피어있는 모습.

모든 번뇌 쉬면 몸도 마음도 편안
경내 전체가 연화세계...
청정한 귀의처

뜻이다. 절을 지을 때부터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서원이 서려 있어서인지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묘한 일들이 휴휴암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5년 전 관세음보살님이 누워계신 채 휴휴암 앞바다에 나투신 것이다. 마치

9년 전 휴휴암이 창건되기 전부터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쉬고 계신 것처럼 망망대해 앞에 머물러 계신 것이다. 근래 해중관세음보살님 주위로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음기도처로 수 많



관음보살 이마 밑에 연잎바위, 연봉이 피어있다. 크기가 성인 7~8명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모양이다.

포 른 동해바다위에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상주도량 휴휴암(休休庵). 영동고속도로 현남분기점부터 나와 속초·양양 방향으로 5분정도 달리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와 기암괴석의 놀라운 절경 속에 자연과 정말 잘 어우러진 한 도량을 접하게 된다.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1번지에 위치한 이 도량은 수행승의 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이다. 그래서 경내에 들어서면 마음의 고향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안락함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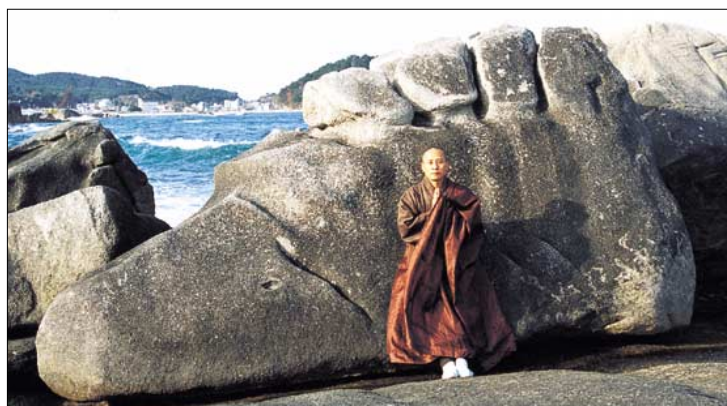
휴휴암(休休庵)은 이름 그대로 쉬고 또 쉬는 뜻의 기도 정진도량이다. 즉, 팔만사천 번뇌를 모두 놓고 쉬라는 뜻이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법당이름은 묘적전(妙寂殿)인데 그렇게도 쉬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하는 일들이 묘하게 이루어지라는



◇휴휴암 해중지해 관세음보살 손바닥바위, 손등바위.

은 불자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불상은 이마에 두건(화관)을 쓰셨고, 가슴에는 감로수 병(호리병) 들고 계시는 형상을 하신 바위불상으로 자연의 부처님이다. 또한 묘하게도 불상의 길이가 묘적전 법당의 길이와 같고, 묘적전에 묘신 관음보살님의 몸매를 매우 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누군가 이 불상을 조성한 듯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신비하다. 불상 발발 좌대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놓여 있으며, 더욱 특이한 것은 관세음보살님 이마 및 다리부분에 2003년 6월부터 연꽃, 연잎, 연발 형상을 한 바위가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크기도 성인 약 7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모양을 하고 있다. 연꽃은 그

본래 관세음보살은 보타 낙가산에 백의 관세음보살로 계시는데 이곳이 바로 그 성지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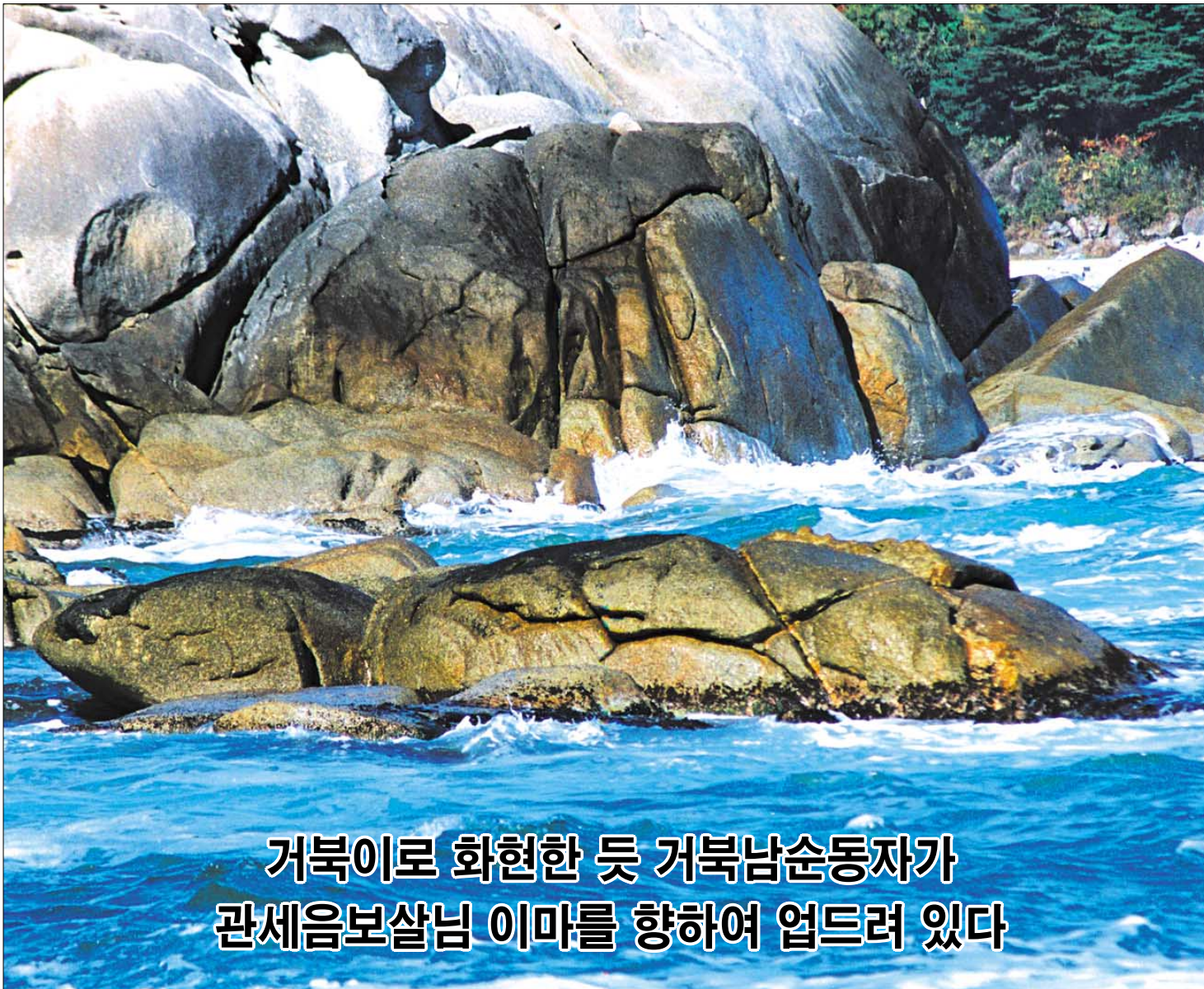


◇연화법당 발가락 바위앞에서 합장하시는 휴휴암 주지스님.



◇휴휴암 해중지해 관세음보살 발바닥 바위.

아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향기, 고아한 품격, 그리고 더러움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이다. 즉 연꽃은 우리에게 탐진치 가독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청정한 불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꽃이 불상 주위에 피어났으니 그 신묘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의 작품도 아닌 자연적으로 피어난 연꽃발에 누워 쉬고 계시는 모습은 마치 이곳이 연화세계가 아니냐 착각이 들 정도로서 수많은 불자들의 또 다른 귀의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9면으로 이어짐



**거북이로 화현한 듯 거북남순동자가
관세음보살님 이마를 향하여 엽드려 있다**



◇휴휴암 묘적전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관세음보살 현신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천일철야 기도중**

8면에서 계속 휴휴암 사부대중은 요즘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만독(萬) 천일철야정진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다. 한 대중은 "휴휴암 주지스님은 30여년간을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천일동안 백만독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라며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 원찰로서 자랑을 서슴치 않는다. 주지스님이 오랜기간 대비주기도를 드리게 된 통기는 특이하다. 과거 오랜 겁 전에 관세음보살님이 정광왕 여래 부처님으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법문을 들으시고 초지보살에서 팔지보살로 경중뛰어 올라 지혜로운 보살님이 되시기 시작한 내용을 알고 부터 자신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주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휴휴암 앞바다에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한 것이 아닐까!

근래에는 탁트인 동해 절경속의 방생 명소로 휴휴암은 전국에 널리 알려 졌다. 바다 연화법당에서는 방생하러 오는 신도들로 인해 매일 용왕기도와 방생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찾아오는 불자들이 휴휴암 대중들은 "일반인들은 잡고, 먹는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저희는 잡힌 것을 풀어주고 베푸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며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게 방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공덕을 기린다. 이 덕에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 어민은 "방생을 하러 오신 신도님들이 크고 작은 어류를 놓아주는 덕에 많은 위안이 됩니다."



◇매년 9월 관음제일전날 전국 각처 불자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다.



◇동해안 바다 가운데에 있는 극락정토 법당인 자연 연화법당에서 매년 해맞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연화법당 방생·용왕기도 이어져

라며 휴휴암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지역 어촌계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잡혀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법스님은 "방생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연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한 자손들도 수명이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놓아주는 자비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방생의 공덕을 강조한다. 잡혀 실의에 빠져 있는 생명을 모두 거두어다 놓아 줄때 헤엄쳐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 할 수 없다는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동해바다를 넘어 온 우주에 퍼질 것이다.

휴휴암은 이름처럼 쉬면서 불만한 명소들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다. 달마 바위, 거북 바위, 새끼거북 바위, 여의주 바위, 손바닥 바위, 손가락 바위, 발바닥 바위, 발가락 바위, 종바위, 바위동굴, 탁 트인 동해바다의 절경 등이다. 특히 휴휴암에서 바다와 바위들을 바라보노라면 해중관세음보살님께 거북 남순동자가 기도드리러 가는 모습이 비추어 진다. 마치 거북가족이 불법을 배우러 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 잡혀, 이 곳이 부처님세계 구도의 도량이 아닌가 하는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난다.

동해안 기도성지로서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 망상을 쉬는 곳 휴휴암, 젊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곳이다. 탐욕으로부터, 상념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들을 쉬게 하는 것이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휴휴암, 관세음보살의 큰 인력으로 쉼터를 찾게 될 것이다.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애혼고혼 축생 미물들까지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수록영가 천도재 기도 봉행**

관음성지 휴휴암은 몸도 마음도 모두 놓고 쉬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상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시기와 질투 증오 갈등과 대립 기뻐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잘나거나 못나거나 팔만 사천의 무진 번뇌를 너도 쉬고 나도 쉬고 또 쉬자는 뜻으로 사찰 이름을 휴휴암이라 하였더니 보타락가산 해안가 절벽에 항상 계신다는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얼마나 좋으면 같이 쉬자고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쉬고 계시는 신비한 도량 휴휴암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천일 철야 주력 기도들

드린 지 일년 째 맞이하는 돌아오는 음력 9월 24일 관음제일 날에 부처님도 쉬고 계시는 푸른 동해바다 연화법당에서 집에서나 병원에서 산에서 물에서 길에서 바다에서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태중아기열가 집안에서 기르던 소 돼지 닭 고양이 강아지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슬프고 가슴 아프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혹은 약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었던 모든 중생신들이 허공과 집안에 머물러 있고 분함과 억울함이 현이 되어 애육소전을 끊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다니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나와 인해 다지고 죽음을 슬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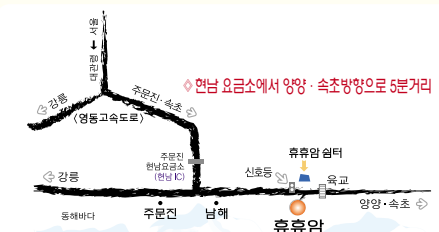
참회하며 죄송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해탈기도 하시고 상제선광부도 유주무주 애혼 고혼 등 수록영가들을 인도하는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우리집안과 나와 연관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 하고 좋은 몸 받기를 바라는 기도 축원을 드리면 집안도 밝아지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맑아져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수록영가 천도 용왕방생기도에 무뎠 동참하시어 모든 업장 소멸 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수록동참금 : 50,000원
- 백 일 기도 : 30,000원
- 다라니 천일철야기도 : 100,000원
- 2005학년도수능입시기도 : 100,000원
- 법당 1년 연등 : 100,000원
- 인등기도 온가족 1개월 : 10,000원

- 우체국 : 200675-02-015135 (예금주 : 신승섭)
- 농협 : 331025-52-047221 (예금주 : 신승섭)
- 인등계좌번호 : 331025-51-03974 1(예금주 : 신승섭)

- **새해 해맞이 기도 안내**
- 12월 31일 금년에도 새해 해맞이 철야기도에 동참하실분은 유유암으로 문의 바랍니다.

- **휴휴암 관음범종 봉사**
- 유유암 3330관 관음범종봉사에 가족이름 세기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휴휴암 행사 참석 이용차량 서울·경기·분당·청주·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오실분들은 휴휴암 이용차량을 이용하실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휴휴암으로 문의하십시오.

또하나의 관음성지 신비한도량 휴 휴 암 주지 흥법 합장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림리 1번지 (033)671-0093,0095 (종무소)